

주체의 건군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위대한 사변

항일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 정규무력인 조선인민군이 창건된 때로부터 70년이 되었다. 듯은 건군절을 맞이한 온 나라 친구들은 탁월한 군건설사상과 정력적인 정도로 해방후 3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정규적혁명무력건설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여 주체혁명 위업승리의 강력한 군사적답보를 마련 하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도와 감사의 정으로 가슴을 뜨고 있으며 세계최강의 혁명무력을 가지고 있는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에 넘쳐있다.

주제 37(1948)년 2월 8일은 우리 인민의 오랜 숙망이 성취된 민족적 대경사의 날이며 일상 두에서 시작된 주체의 건군사에 특기할 위대한 사변의 날이다.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에서 혁명적 정규무역 건설보다 사활적이고 중대한 문제는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강력한 정규군대의 창설을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필수적요구로 내세우시고 불법불법의 고로를 바치시어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적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셨다.

지금도 70년전 2월 8일 혁명적정규무력인 조선인민군의 창건을 세상에 선포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귀천에 울리는 것만 같다.

『조선인민군 군관, 하사, 전사 여러분 동포 여러분!』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인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창립 2주년을 경축하면서 조선사에서 처음으로 인민자신의 정규적무장인 조선인민군의 창건을 선포하게 됩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총칼앞에서 갖은 박해와 탄압을 당하던 조선인민은 해방후 자기손에 정권을 떠나주고 행복한 새 생활을 즐길 줄 알았으나 이제는 조국과 민족을 보위하는 당당한 자기의 정규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온 나라 전체 인민은 자기의 혁명적정규군을 가지게 된 기쁨으로 걱정을 늘어놓지 못하며 위대한 수령님을 경건히 우러렸다.

『로동신문』은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이렇게 전하였다.

오~ 우~ 러~ 러~ 보~ 이~는 곳에 김일성원장!

누가 우리 조국의 강토를 침범할수 있느냐? 누가 우리 민족의 행복을 짓



위대한 수령님께서 정규적혁명무력건설에 쓰으신 불멸의 령도업적을 가슴 깊이 새겨간다.

- 조선혁명박물관에서 -

밟을수 있느냐? 우리에게는 절세의

애국자 김일성장군이 계신다! ...

영웅적 조선인민군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정규적혁명무력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여 미제의 무력침공을 물리

치고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룩하시였으며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를 일떠

세우신 우리 수령님은 참으로

온인, 절대인 윤리의 원칙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군대는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직접

이어받은 혁명군대이며 항일투사를

를 끌고으로 하여 로동자, 농민을 비

롯한 근로인민의 우수한 아들들로

조직된 인민의 참다운 군대입니다.』

듯깊은 그날 우리 나라 역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혁명적정규무력인

조선인민군의 창건을 선포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실종이 얼마나

뜨거우시였으라.

결코 쉬울 길이 아니었다.

정규화된 혁명군대, 자기의 강력한

민족군대를 건설하는 것은 해방된 우

리나라를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증대한 역사적과제였다.

당시 미제는 남조선을 강점하고

수많은 군사시설물을 대대적으로

신설확장하면서 북침전쟁준비책동에

미친듯이 날뛰고 있었다.

한편 종파사대주의자들은 조국이

통일되기 전에는 군대가 필요없다

느니, 외국의 원조가 없이는 정규군

을 건설할 수 없다느니 하면서 정규

무력건설을 반대하여 나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중이떠중

이들의 오갖 계략과 광물을 짓부서

버리시고 정규화된 혁명군대를 자체

의 힘으로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시켜나가시였다.

별찌 해방지후인 주제 34(19

45)년 8월 군사정치간부들을 비롯한

군사정치간부양성기지들의 교육교양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었으며

땅크병, 포병, 공병, 통신병 등 정규

무력의 여러 병종 부대들을 조직하

고 정규군건설에 필요한 무장장비를

국가로 되기 위하여는 나라와

민족을 보위하여 혁명의 전통을

수호할 수 있는 자기의 강력한 민족

군대를 창건하여야 한다고 밝히신

한 기간에 혁명적정규무력을 건설한

군을 정규적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

시키기 위한 거창한 사업을 현명

하게 조직명도하시였다.

그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규군건설에 필요한 지휘관들을

키워내시기 위해 몸소 현지에

나가시여 평양학원의 터전도 잡아

주시고 중앙보안간부학교를 비롯한

군사정치간부양성기지들의 교육교양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었으며

민족사적사연이였다.

우리 인민은 혁명의 힘으로

자기의 자랑스러운 정규군대를 조직

하는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통치로

모시여 세계최강의 혁명적무장력으로

그 위용을 온 세상에 표시하고 있다.

우리 혁명무력의 강장발전에

쌓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

가시는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통치께서

제시에 당중앙위원회의 드락에 피끓

는 심장을 잊고 최강의 정치군사적

위력을 높이 떨쳐나가는 영웅적조선

인민군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빛날것이다.

우리 수령님께서 서면이 창조하실

수 있는 혁명의 기적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도로 인민군

대가 창건된 것은 조선민족이 그

손으로 능히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를 세계

선진국들의 대열에 당당히 옮겨세울

수 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시위한

민족사적사연이였다.

우리 인민은 혁명의 힘으로

자기의 자랑스러운 정규군대를 조직

하는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통치께서

제시에 당중앙위원회의 드락에 피끓

는 심장을 잊고 최강의 정치군사적

위력을 높이 떨쳐나가는 영웅적조선

인민군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빛날것이다.

력사의

2월 8일에

더불어

글

본사기자 김준혁

사진

성

기차인 군기를 높이

추켜들고 위대한

수령님을

우리 군

목 청 것

터진 만세 소리

는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조국을

혁명의 풍대로 굳건히 지켜갈

불리는 맹세의 메아리였다.

인민군대의 군기를 보면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품

속에서 헤아난 불멸의 정규적

혁명무력이 있기에 이 땅우에

는 영원히 승리와 번영만이 펼

쳐질것이라는 확신에 넘쳐

복같은 환호성을 터치였다.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 길

에서 조선인민군기는 우리

혁명무력의 무적의 기상을

온 세상에 펼쳐며 높이 휘날리었

고 그 기록에 영웅적위훈과 승

리만을 아로새겨왔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걸어

온 인민군대의 영광스러운 전

투적행로를 말해주는 성스러운

군기.

세상에 군대도 많고 군기도

많지만 우리 인민군대의 군기

처럼 영원한 승리와 영광의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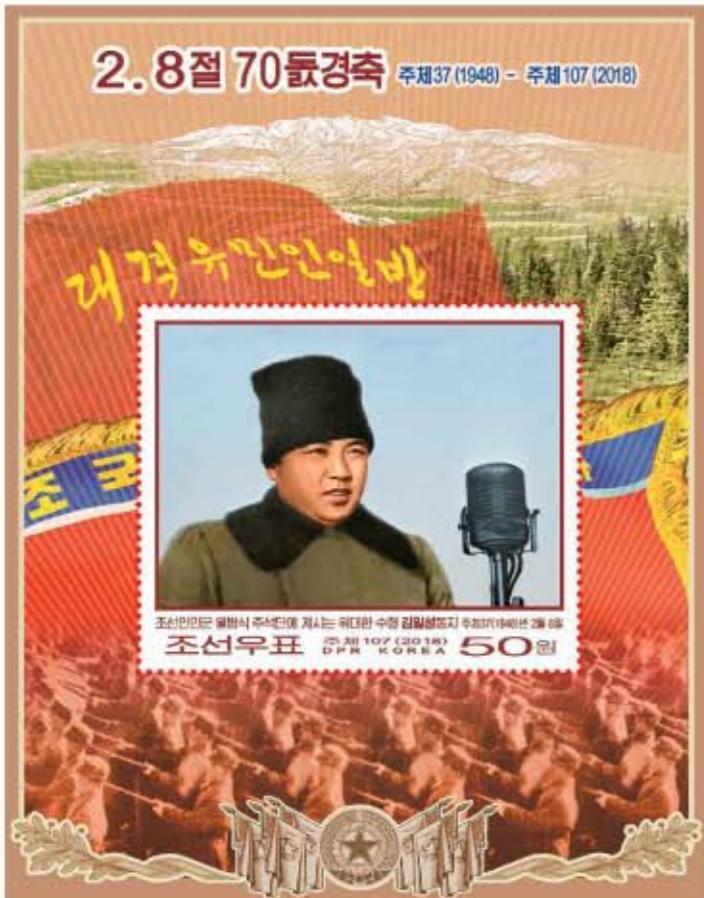
치로 나뭇가지에 군기는 없다.

본사기자 팀 정호

의 거치로 됩니다.

</div

조선인민군 창건 70돐을 맞으며 우 표 발 행



조선인민군 창건 70돐을 맞으며 국가 우표 발행 국에서 우표(소형전지 2종, 개별 우표 1종)들을 창작하여 내놓았다.

우표들의 우편부분에는 《2.8 절 70돐경축 주제 37(1948) - 주제 107(2018)》이라는 글과 이어져 있다.

주제 37(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 열병식 주석단에



2.8 절 경 축

녀 맹 중 앙 예술 선전대 공연 진행

2.8절 경축 녀 맹 중 앙 예술 선전대 공연은 6일 녀성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조선 사회주의녀성동맹 중앙 위원회 위원장 장춘실동지, 판계부문, 녀 맹 일군들, 녀 맹 헌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시이야기 《인민은 영광을 드린다》로 시작된 풍연무대에는 활창 《김 일성 대원수 만년세》, 《조선인민군가》, 2중창 《전승의 만년대가 오늘도 말해 주네》를 비롯한 다채로운 풍연들 였다.

출연자들은 주체적정 규모로 풍연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고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혁명 무력으로 강화 발전 시키 신

위대한 수령 김 일성동지와 함께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격조높이 칭송하였다.

인민군대를 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밟아나가며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믿음직하게 수호해 나가는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 키우시기 위해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혼인으로 고로를 되새겨주는 듀

창 《초소 수령님 오셨네》, 듀창과 방창 《말하라 선군길이》, 기타방창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등에서 종목

들은 관람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리였다.

독창 《단숨에》, 기악중주

3중창 《나가자 조선아 병진 앞으로》를 비롯한 종목들

에서 출연자들은 백두의 혁명 정신으로 만장아린 당 중앙경찰사 을 펼쳐가는 사회주의 조

선의 공민된 궁지를 암고 일련 단심 당을 따라 혁명의 한길을 얹어세계 걸어갈 은 나라

녀성들의 불리는 태양의 반영 하였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전진하는 주체조선의 앞길에는 오직 영광만이 있음을 짚어가는 파시한 풍연은 활창 《가리라 백두산으로》, 《사회주의 전진 가》,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로 끝났다.

제 시는 위대한 수령 김 일성동지의 영상사진문헌을 정중히 모신 소형전지에는 조선인민군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상징하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 반일인민유격대기념비, 조선인민군 군기가 형상되어 있다.

해방 후 건군로선을 새 조국 건설의 3대 업적의 하나로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새겨져 있다.

우리 당에 무한히 충직한 영웅적 조선인민군 병사들의 모습을 담은 개별 우표이다.

대를 이어 장군복, 최고령판복을 누리며 영광의 한길을 걸어온 조선인민군의 자랑스러운 행로를 되새겨주는 우표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를 혁명 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이 있기에 주체 혁명업무,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은 승리적으로 담보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 22차 김정일화 축전

선전화가 나왔다

영웅적 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1948년 2월 8일의 평화

주제 37(1948)년 2월 8일은 헌신과 헌신의 하루이다.

하지만 우리 인민은 7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 날을 잊지 않고 있으며 조선인민군이 창건한 역사의 그날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지난날 자기의 민족군대가 없어 비참한 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인민, 신출귀몰하며 죄악들을 쳐냈던다는 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전설처럼 들으며 기쁨과 감격에 울고 웃던 우리 인민은 이 날을 어떻

게 맞고보냈던가.

70년전 그날에 강산을 친갑한 열광의 환호는 어떤 메아리를 남겼는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은 통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은 언제나 조국보위, 혁명보위, 인민보위의 위력한 보검이었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창조해나가는

힘이 있는 선봉대, 물격대였습니다.』

1948년 2월 8일, 평양역 광장(당시)은 이른 아침부터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긴 긴 밤을 환희속에 잘 둘며 새날이 밝기만을 기다린 인민들이 평양역 앞으로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한겨울의 맹严峻 추위도 그들의 불같은 마음을 막을수 없었으니 밤의 로인도, 쌍데미리처녀도, 어린 아이도 모두가 펼쳐나

선것이다.

『우리 군대가 열병식을 한데요!』, 이 한마디 소식은 평양역으로 향한 길이란 길은 꽉 메웠고 지어 대동강의 얼음우도 사람천지로 만들었다.

이날 평양역 광장으로는 평양 시민들은 물론 그 주변지구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그 수는 40여만명을 헤아렸다고 한다.

누가 오라고 부르지도, 가라

고 며칠지도 않았다. 하기로 어찌하여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삼십오억 약속이나 한듯 광장으로 달려왔다던가.

그들은 나라를 빼앗긴腔에 인간이 하의 천대와 명시를 받던 사람들이었다. 정병과 징용으로 산성과 물선은 이역땅에 걸려갔다. 오행 살아돌아온 사람들도 있었다. 아주와 같은 왜놈들이 우리와 말과 깅까지 없어려들 때 피멍든 가슴들에 쟁인 원한은 얼마나 커섰던가. 금방 사랑하는 이들을 바라보던 어머니와 아버지의 갈에 맞아 피흘리며 숨질 때 그 아들은 과연 무엇을 생각하였는가.

그들은 자기의 군대가 없는 성음을 토크히 제향한 사람들이었다.

바로 그래서 자기의 군대가 태어날 날을 오래 불망 기다렸고 우리 군대의 모습을 한시라도 빨리, 누구보다 먼저 보고 싶은 충동을 누를 걸 없었던 것이다.

『조선인민군은 김일성장군의 빛나는 유격대의 산아이다.』

『조선인민군의 조직자이며 지도자인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인민군은 조국과 인민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무력이다.』

열병광장의 제일 높은 곳, 주석단가까이에 서 있거나 이 글밭들은 우리 인민의 절절한 심정을 그대로 담은것이었다.

역두의 대형시계가 오전 10시를 가까이 할무렵, 주석단을 향해 엄숙히 정렬한 열병대오에 감격의 파도가 일었다.

열병식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듣고자 자기의 강력한 민족군대를 바라던 인민들은 그토록 짧은 기간에 정체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토털시킨 준비될 수 있었으며 그대로 달은것이었다.

역두의 대형시계가 오전 10시를 가까이 할무렵, 주석단을 향해 엄숙히 정렬한 열병대오에 감격의 파도가 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열병식장에 도착하신것이었다.

열병광장은 마치 해수는 바다처럼 설레였고 우렁찬 박수소리가 터져 올랐다. 주석단에 높이 서서면에 활한 미소를 짓고 손들에 달레를 보내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은 백두의 밀림에서 항일유격대를 사열하

시후 뜨는 하늘에 흰운 쪽포가 날아오르자 군중의 감격은 고조를 이루었다.

에 국연설이었다.

군악대의 장엄한 애국가의 주악을 울리고 이에 화답하는 수

십만군중의 함성이 평양시를 진

감했다. 선호란발사의 총성이

울리자 인민군대의 열병행진이

시작되었다. 지축은 울리며 나

가는 보병대, 기마대, 자동차

에 뛰어드는 각종 대포들... 잠

시후 뜨는 하늘에 흰운 쪽포가

날아오르자 군중의 감격은 고조

를 이루었다.

그때 평양역 광장에서 울린 활

호성이 모란봉에까지 메아리쳐

갔다는 사실을 놓고도 활영의

열도가 얼마나 강렬했는가를 잘

알수 있다. 조선인민군의 첫 열

병식으로 항일유격대를 사열하

시후 뜨는 하늘에 흰운 쪽포가

날아오르자 군중의 감격은 고조

를 이루었다.

『인민군대라는 말만 들어도

무한한 기쁨이 가슴에 가득차집니다.

그 얼마나 행복스럽고 영

광스러운 일입니다. 조선청년들의

가슴속에 풍기고 서리였던

소원이 오늘에야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그저 뛰어들어 어깨를

주고 군인들과 같이 행진하고

싶었습니다.』

『4년전만 하여도 뼈들이

날뛰던 바로 그길로 오늘은 우

리의 인민군대가 저렇게 썩씩하

게 행군하는것을 보니 그저 꿈

만 같습니다.』

사기들의 손으로 정권을 세우고

고 모든 민주개혁을 승리으로

터진 민족군대를 바라던 인민

의 숙망을 풀어 주신 절세의

국가의 장엄한 선언이었고 수

천수만의 산장을 건국으로 더욱

높뛰게 한 또 한번의 격동적인

수령님의 활동입니다.

군악대의 장엄한 애국가의 주악을 울리고 이에 화답하는 수

십만군중의 함성이 평양시를 진

감했다. 선호란발사의 총성이

울리자 인민군대의 열병행진이

시작되었다. 지축은 울리며 나

가는 보병대, 기마대, 자동차

에 뛰어드는 각종 대포들... 잠

시후 뜨는 하늘에 흰운 쪽포가

날아오르자 군중의 감격은 고조

를 이루었다.

그때 평양역 광장에서 울린 활

호성이 모란봉에까지 메아리쳐

갔다는 사실을 놓고도 활영의

열도가 얼마나 강렬했는가를 잘

알수 있다. 조선인민군의 첫 열

병식으로 항일유격대를 사열하

시후 뜨는 하늘에 흰운 쪽포가

날아오르자 군중의 감격은 고조

를 이루었다.

그때 평양역 광장에서 울린 활

호성이 모란봉에까지 메아리쳐

갔다는 사실을 놓고도 활영의

열도가 얼마나 강렬했는가를 잘

알수 있다. 조선인민군의 첫 열

병식으로 항일유격대를 사열하

시후 뜨는 하늘에 흰운 쪽포가

날아오르자 군중의 감격은 고조

를 이루었다.

그때 평양역 광장에서 울린 활

호성이 모란봉에까지 메아리쳐

갔다는 사실을 놓고도 활영의

열도가 얼마나 강렬했는가를 잘

알수 있다. 조선인민군의 첫 열

병식으로 항일유격대를 사열하

시후 뜨는 하늘에 흰운 쪽포가

날아오르자 군중의 감격은 고조

를 이루었다.

그때 평양역 광장에서 울린 활

호성이 모란봉에까지 메아리쳐

갔다는 사실을 놓고도 활영의

열도가 얼마나 강렬했는가를 잘

알수 있다. 조선인민군의 첫 열

병식으로 항일유격대를 사열하

시후 뜨는 하늘에 흰운 쪽포가

날아오르자 군중의 감격은 고조

를 이루었다.

그때 평양역 광장에서 울린 활

호성이 모란봉에까지 메아리쳐

갔다는 사실을 놓고도 활영의

열도가 얼마나 강렬했는가를 잘

알수 있다. 조선인민군의 첫 열

병식으로 항일유격대를 사열하

시후 뜨는 하늘에 흰운 쪽포가

날아오르자 군중의 감격은 고조

를 이루었다.

그때 평양역 광장에서 울린 활

호성이 모란봉에까지 메아리쳐

갔다는 사실을 놓고도 활영의

열도가 얼마나 강렬했는가를 잘

알수 있다. 조선인민군의 첫 열

병식으로 항일유격대를 사열하

시후 뜨는 하늘에 흰운 쪽포가

날아오르자 군중의 감격은 고조

를 이루었다.

그때 평양역 광장에서 울린 활

호성이 모란봉에까지 메아리쳐

갔다는 사실을 놓고도 활영의

열도가 얼마나 강렬했는가를 잘

알수 있다. 조선인민군의 첫 열

병식으로 항일유격대를 사열하

시후 뜨는 하늘에 흰운 쪽포가

날아오르자 군중의 감격은 고조

를 이루었다.

불패의 강군을 키우신 위대한 업적

오늘 우리의 영웅적 조선인민군은 무적 힘 속의 혁명강군으로, 강위력한 전투대오로 그 위용을 만방에 떨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슬하에서 우리 혁명무력은 혁명적 성격이 뚜렷하고 전투적기질과 위력을 더없이 강한 혁명강군의 위용을 담보해 떨쳐왔습니다.』

우리 혁명무력의 자랑한 승리와 영광의 력사를 되새겨볼수록 인민군대를 할 일의 및나는 전통을 계승한 강철의 대오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해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이 숭엄히 단양운다.

20성상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시며 조국 해방위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의 전통을 계승한 강철의 대오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해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이 숭엄히 단양운다.

정규적 혁명무력건설은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필수적요구이다.

자기의 민족군대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라고 말할수 없다.

하지만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통치에서 갇해버되고 국고마저 땅니 당시의 혁판에서 군종, 병종, 전문병을 다 갖춘 정규무력을 건설한다는 것은 결코 쉬울 일이 아니었다.

정규적 혁명무력건설은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필수적요구이다.

정녕 그것은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총대에서 군사증시사상과 숭고한 애국현신이 인아는 고귀한 결정체였다.

오늘도 우리의 귀전에 열병장의 뜻 깊은 자리에서 『조선인민군창건에 즈음하여』라는 역사적인 연설을 하시던 우리 수령님의 우렁우렁한 윤성이 들려오는 것만 같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전제인민의 이름으로 조선인민군의 창건을 세계에 선보하면서 조선민족의 운명을

의 조선인민자신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하며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침략도구인 『유엔주시조선지원단에 의해 조선제가 해결될수는 절대로 없다는것을 다시 한번 단호히 성명하는바이라고 엄숙히 시키신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강력한 총대에

의해서만 자주독립국가의 존엄도, 새 사회건설의 성과도 담보될수 있다는 철석 같은 의지를 지니시고 정규부력건설에 우선적인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한 령도에 의하여 해방후 3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정규군건설의 른튼한 핵심역량이 마련되고 그 대오가 급격히 확대되었으며 현대적인 군종, 병종건설에 필요한 물질기술적토대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주제 37(1948)년 2월 8일, 크나큰 환희와 갑작으로 설레이던 잊지 못할 그날의 열병장에서 항일의 전설적영광, 민족의 태양을 우러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목청껏 만세의 함성을 터치였다. 국군이 쇠약하여 해방군의 파수도 남의 나라에 말려가고 얼마 안되는 조선군대마저 강제로 해산되는 비극을 꾀하는 속에 감수해야 했던 우리 민족이 조선인민군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령님께 을리는 감사의 인사였다.

새 조선의 정규적 혁명무력의 탄생, 정녕 그것은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총대에서 군사증시사상과 숭고한 애국현신이 인아는 고귀한 결정체였다.

오늘도 우리의 귀전에 열병장의 뜻 깊은 자리에서 『조선인민군창건에 즈음하여』라는 역사적인 연설을 하시던 우리 수령님의 우렁우렁한 윤성이 들려오는 것만 같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전제인민의 이름으로 조선인민군의 창건을 세계에 선보하면서 조선민족의 운명을

의 조선인민자신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하며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침략도구인 『유엔주시조선지원단에 의해 조선제가 해결될수는 절대로 없다는것을 다시 한번 단호히 성명하는바이라고 엄숙히 시키신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전군기집성·김정일주의화강령과 군력

얼마나 위대한것이였는가를 똑똑히 실증해주었다.

영웅적 조선인민군은 보총과 원자란의 대결이었던 지난 가련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세계『최강』을 떠들던 미제의 거만한 고대를 꺾고 빛나는 승리의 7.27을 맞이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련승』을 기록했다는 미제의 정예사단들과 군단들에 수치스러운 오명을 달아준 영웅들, 세계에 전사에 없는 거친과 창조한 영웅한 혁명군들, 『하늘의 오색』라고 떠벌였던 『B-29』의 신화를 깨버리고 주몽학습으로 만들어버린 붉은 창배들이 바로 위대한 명장의 승하에서 자라난 영웅적조선인민군 장병들이였다.

조선인민군의 위대한 승리의 력사는 최세의 친중명장을 대를 이어 높이 모시여 더욱 빛을 뿌리어왔다.

주제 49(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근위 수사류경수제 105땅크사단에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주율을 세우기 위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군령도의 전기간 우리 혁명무력의 본성에 맞게 전통을 김일성주의로 확장시켜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조선인민군에 당부한 명령을 험하게 이끄시어 인민군대를 이룩하였고 조선의 혁명과 혁명을 지닐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은 결코 령도의 크기나 인구수에 의해서 가 아니라 령도자의 위대성에 의해 결정된다. 조선의 혁명과 혁명을 지닐수 있다.

어느 나라나 강국의 존엄을 지닐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제제를 떠드는 유일초대국과 당당히 맞서싸워 승리를 이룩하고 있는 주체조선인민이 그런 빛나는 존엄과 영예를 지닐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은 결코 령도의 크기나 인구수에 의해서 가 아니라 령도자의 위대성에 의해 결정된다. 조선인민군은 근위 수사류경수제 105땅크사단에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주율을 세우기 위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군령도의 전기간 우리 혁명무력의 본성에 맞게 전통을 김일성주의로 확장시켜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조선인민군에 당부한 명령을 험하게 이끄시어 인민군대를 이룩하였고 조선의 혁명과 혁명을 지닐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은 결코 령도의 크기나 인구수에 의해서 가 아니라 령도자의 위대성에 의해 결정된다. 조선의 혁명과 혁명을 지닐수 있다.

미국과 그 주종세력들의 대결에서 언제나 승리하고 있는 조선, 그 승리의 법칙은 위대한 령도자 모신 군대와 인민은 반드시 이긴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령도의 평도로 조선은 불폐의 강국으로서의 위용을 더욱 높이 떨칠것이다.』

『최세의 천출 명장이 신 세상에 하는 최고령도자동지가 높이 모시여 우리 인민군대는 앞으로도 김일성, 김정일군대, 김정은혁명강군의 존엄과 위력을 높이 떨칠것이다.』

현대적인 무장장비가 강군의 정표로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강국의 존엄을 지닐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제제를 떠드는 유일초대국과 당당히 맞서싸워 승리를 이룩하고 있는 주체조선인민이 그런 빛나는 존엄과 영예를 지닐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은 결코 령도의 크기나 인구수에 의해서 가 아니라 령도자의 위대성에 의해 결정된다. 조선의 혁명과 혁명을 지닐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은 결코 령도의 크기나 인구수에 의해서 가 아니라 령도자의 위대성에 의해 결정된다. 조선의 혁명과 혁명을 지닐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은 결코 령도의 크기나 인구수에 의해서 가 아니라 령도자의 위대성에 의해 결정된다. 조선의 혁명과 혁명을 지닐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은 결코 령도의 크기나 인구수에 의해서 가 아니라 령도자의 위대성에 의해 결정된다. 조선의 혁명과 혁명을 지닐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은 결코 령도의 크기나 인구수에 의해서 가 아니라 령도자의 위대성에 의해 결정된다. 조선의 혁명과 혁명을 지닐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은 결코 령도의 크기나 인구수에 의해서 가 아니라 령도자의 위대성에 의해 결정된다. 조선의 혁명과 혁명을 지닐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은 결코 령도의 크기나 인구수에 의해서 가 아니라 령도자의 위대성에 의해 결정된다. 조선의 혁명과 혁명을 지닐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은 결코 령도의 크기나 인구수에 의해서 가 아니라 령도자의 위대성에 의해 결정된다. 조선의 혁명과 혁명을 지닐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은 결코 령도의 크기나 인구수에 의해서 가 아니라 령도자의 위대성에 의해 결정된다. 조선의 혁명과 혁명을 지닐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은 결코 령도의 크기나 인구수에 의해서 가 아니라 령도자의 위대성에 의해 결정된다. 조선의 혁명과 혁명을 지닐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은 결코 령도의 크기나 인구수에 의해서 가 아니라 령도자의 위대성에 의해 결정된다. 조선의 혁명과 혁명을 지닐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은 결코 령도의 크기나 인구수에 의해서 가 아니라 령도자의 위대성에 의해 결정된다. 조선의 혁명과 혁명을 지닐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은 결코 령도의 크기나 인구수에 의해서 가 아니라 령도자의 위대성에 의해 결정된다. 조선의 혁명과 혁명을 지닐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은 결코 령도의 크기나 인구수에 의해서 가 아니라 령도자의 위대성에 의해 결정된다. 조선의 혁명과 혁명을 지닐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은 결코 령도의 크기나 인구수에 의해서 가 아니라 령도자의 위대성에 의해 결정된다. 조선의 혁명과 혁명을 지닐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은 결코 령도의 크기나 인구수에 의해서 가 아니라 령도자의 위대성에 의해 결정된다. 조선의 혁명과 혁명을 지닐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은 결코 령도의 크기나 인구수에 의해서 가 아니라 령도자의 위대성에 의해 결정된다. 조선의 혁명과 혁명을 지닐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은 결코 령도의 크기나 인구수에 의해서 가 아니라 령도자의 위대성에 의해 결정된다. 조선의 혁명과 혁명을 지닐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은 결코 령도의 크기나 인구수에 의해서 가 아니라 령도자의 위대성에 의해 결정된다. 조선의 혁명과 혁명을 지닐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은 결코 령도의 크기나 인구수에 의해서 가 아니라 령도자의 위대성에 의해 결정된다. 조선의 혁명과 혁명을 지닐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은 결코 령도의 크기나 인구수에 의해서 가 아니라 령도자의 위대성에 의해 결정된다. 조선의 혁명과 혁명을 지닐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은 결코 령도의 크기나 인구수에 의해서 가 아니라 령도자의 위대성에 의해 결정된다. 조선의 혁명과 혁명을 지닐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은 결코 령도의 크기나 인구수에 의해서 가 아니라 령도자의 위대성에 의해 결정된다. 조선의 혁명과 혁명을 지닐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은 결코 령도의 크기나 인구수에 의해서 가 아니라 령도자의 위대성에 의해 결정된다. 조선의 혁명과 혁명을 지닐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은 결코 령도의 크기나 인구수에 의해서 가 아니라 령도자의 위대성에 의해 결정된다. 조선의 혁명과 혁명을 지닐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은 결코 령도의 크기나 인구수에 의해서 가 아니라 령도자의 위대성에 의해 결정된다. 조선의 혁명과 혁명을 지닐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은 결코 령도의 크기나 인구수에 의해서 가 아니라 령도자의 위대성에 의해 결정된다. 조선의 혁명과 혁명을 지닐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은 결코 령도의 크기나 인구수에 의해서 가 아니라 령도자의 위대성에 의해 결정된다. 조선의 혁명과 혁명을 지닐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은 결코 령도의 크기나 인구수에 의해서 가 아니라 령도자의 위대성에 의해 결정된다. 조선의 혁명과 혁명을 지닐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은 결코 령도의 크기나 인구수에 의해서 가 아니라 령도자의 위대성에 의해 결정된다. 조선의 혁명과 혁명을 지닐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은 결코 령도의 크기나 인구수에 의해서 가 아니라 령도자의 위대성에 의해 결정된다. 조선의 혁명과 혁명을 지닐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은 결코 령도의 크기나 인구수에 의해서 가 아니라 령도자의 위대성에 의해 결정된다. 조선의 혁명과 혁명을 지닐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은 결코 령도의 크기나 인구수에 의해서 가 아니라 령도자의 위대성에 의해 결정된다. 조선의 혁명과 혁명을 지닐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은 결코 령도의 크기나 인구수에 의해서 가 아니라 령도자의 위대성에 의해 결정된다. 조선의 혁명과 혁명을 지닐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은 결코 령도의 크기나 인구수에 의해서 가 아니라 령도자의 위대성에 의해 결정된다. 조선의 혁명과 혁명을 지닐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은 결코 령도의 크기나 인구수에 의해서 가 아니라 령도자의 위대성에 의해 결정된다. 조선의 혁명과 혁명을 지닐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은 결코 령도의 크기나 인구수에 의해서 가 아니라 령도자의 위대성에 의해 결정된다. 조선의 혁명과 혁명을 지닐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은 결코 령도의 크기나 인구수에 의해서 가 아니라 령도자의 위대성에 의해 결정된다. 조선의 혁명과 혁명을 지닐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은 결코 령도의 크기나 인구수에 의해서 가 아니라 령도자의 위대성에 의해 결정된다. 조선의 혁명과 혁명을 지닐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은 결코 령도의 크기나 인구수에 의해서 가 아니라 령도자의 위대성에 의해 결정된다. 조선의 혁명과 혁명을 지닐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은 결코 령도의 크기나 인구수에 의해서 가 아니라 령도자의 위대성에 의해 결정된다. 조선의 혁명과 혁명을 지닐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은 결코 령도의 크기나 인구수에 의해서 가 아니라 령도자의 위대성에 의해 결정된다. 조선의 혁명과 혁명을 지닐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은 결코 령도의 크기나 인구수에 의해서 가 아니라 령도자의 위대성에 의해 결정된다. 조선의 혁명과 혁명을 지닐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은 결코 령도의 크기나 인구수에 의해서 가 아니라 령도자의 위대성에 의해 결정된다. 조선의 혁명과 혁명을 지닐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은 결코 령도의 크기나 인구수에 의해서 가 아니라 령도자의 위대성에 의해 결정된다. 조선의 혁명과 혁명을 지닐수 있다.

나라와